

大學改革과 學部制 도입의 課題

이 현 청¹⁾

I. 머리말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무한·무차별 경쟁시대에 대처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차원의 대학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나라 대학들도 선진국의 교육시장 개방 압력과 기술 보호장벽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대학교육 경쟁력의 배양 등의 우선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아탑적 대학교육의 관점이 퇴조하고 교육을 서비스 산업의 일환으로 이해하려 하는 교육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모든 이를 위한 대학교육체제인 개방대학체제가 확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학생소비자시대를 도래케하여 결과적으로 학사운영에 있어서도 고객중심 학사과정(curriculum)에 의한 다학문적 접근의 보편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지난 2년동안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나라 대학들도 엄청난 개혁을 수용해야만 했고 지금도 5.31 교육개혁의 실천과제에 따라 행·재정적 체제는 물론이려니와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학과중심체제의 변화까지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우리 나라 대학들이 경험하고 있는 많은 변화들은 학제(學制)와 학계(學系) 그리고 대학 구성원들의 과정적 검증에 이르기까지의 대학교육 전반에 관한 것이다.

물론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나라 대학들의 제반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급격한 교육개혁 과정에서 겪게 되는 대학과 대학 구성원들의 우려와 충격도 간과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나라 대학교육에서 개혁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은 자율화와 다양화, 특성화와 수월성 제고 등으로서 결국 특성있는 교육체제와 질 높은 교육을 그 근간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체제적 개혁 내용인 대학유형별 특성화, 입학제도 개선, 국립대학 개혁, 대학원중심 대학안, 전문대학원 개편안 등과 구조적 개혁인 교수관리체제, 학부제, 정원 및 학사자율화 방안 등이 대학가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 개혁 내용중 그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은 없으나 전공과 전공간 그리고 교수와 교수간의 갈등의 소지를 가장 많이 안고 있는 과제가 학부제 개혁안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전국의 72개 대학이 어떤 형태로든 학부제를 수용하고 있으며 전국 160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557개 학과가 향후 그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제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파장은 매우 커서 교수의 경우나 학생 모두에게 소속 학과의 개념에서 담당전공의 개념으로의 인식 변화가 불가피하여 커리큘럼에서부터 졸업후의 취업전망에 이르기까지의 대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학부제 도입에 따른 일반론적인 장단점을 살펴보고 통계학과의 프로그램 현황에 비추어 학부제의 과제를 살펴본 다음 학부제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학과중심제도와 학부제 도입

학부제 도입에 따른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 대학 학사과정의 학과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우리 나라 대학들은 현재 557개 학과를 설치하고 있는데 선진

1)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국 대학들의 대다수 대학들이 평균 40-50종의 학부 학과설치에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게 공통된 견해이다. 물론 학사과정의 학과가 지나치게 세분화된 데에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으나 학과설치를 승인하는 교육부와 정원을 늘리려는 편법으로서 학과 증설을 해 온 대학 공동의 책임이라는 양비론적 견해가 일반적이다.

학사과정의 학생수를 증원하려는 목적이거나 교수를 확보하기 위해 세분화한 경우 그리고 교수들의 전공 이기주의적 성향에 따른 학과 세분화의 결과이지만 결국 학과의 세분화 때문에 대학의 학사과정 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을 부인할 길이 없다.

1994년 10월 28일 교육부가 학과통합으로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1995년 3월4일 대학 학사자유화 등 관련 교육법시행령 중 개정령 공포 통보(교육부 학부 81210-419) 이후 각 대학들은 앞을 다투어 학과 통폐합과 학부제 도입을 확산시켜 왔다. 그러나 과연 학부제가 우리 나라 대학교육의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이 되는가 하는 점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1. 학과중심제도의 문제점

우리 나라 대학들은 1980년대인 지난 10여년 동안 지나치게 학과를 세분하여 증과를 하여 왔다. 한마디로 백화점식 학과설치에 따라 유사학과의 개설은 물론이고 대학원의 전공 심화과정에서나 가능한 학과를 무분별하게 설치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우리 나라 160개 4년제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수는 557개 학과이며 명칭만으로는 1972개에 달할 정도로 학문 영역이 세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계열별로 볼 때 인문사회계나 예체능계 그리고 사범계보다는 이공계의 세분화 정도가 심해서 전체의 41.5%인 231개 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의 단적인 예로서 이공계 학과를 들 수 있는데 컴퓨터공학이나 기계공학의 예를 든다면 선진국의 3-4개 학과에 비해서 우리 나라는 15개 유사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과세분화의 결과, 국제경쟁력의 제고는 말할 나위도 없고 학과간 폐쇄적 운영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학과중심제도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적절한 학과를 설치하여 운영하지 않고 지나치게 세분화한데에 문제점이 있다 하겠다. 현재와 같은 학과중심체제의 운영은 다학문적 접근을 통한 학사과정 통합운영을 시도하려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될 뿐만 아니라 교수의 전공이기주의와 학과 분파주의적 성향을 조장하는 경향을 심화시키고 있어 대학의 고질적인 비효율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특히 폭 넓은 교양인공과 다기능적 기술인을 양성하려는 시대적 교육상과 위배되는 교과과정의 중복 편성과 학과 영역별 폐쇄 운영은 졸업 이후의 취업 제한과 학습자들의 교과목 선택의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여 왔다.

따라서 학과중심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몇 가지로 요약 정리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왔다.

① 전공교육의 편협성과 기초 전공교육의 제한

학과세분화에 따른 학과중심제도의 문제점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점은 전공교육의 편협성과 기초 전공교육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학부과정에서는 현대 사회에 부합되는 폭 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공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을 경우 학생들의 교과 선택의 폭과 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결국 편협된 전공을 이수하는데 그치게 됨으로써 학부과정의 기본 취지에 위배되게 된다.

② 적성 발굴 기회 상실과 학과 선택의 혼란

학과중심 제도하에서는 학생들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학과에 대해 제대로 전공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경우 전공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전공을 선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적성이나 취향 그리고 자신의 장래 진로와 부합되지 않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적성 발굴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높다.

③ 학생과 교수 충원 등의 방편으로서의 학과설치

지금껏 신설학과의 설치는 학생과 교수 충원이 방편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학과설치의 당위성보다는 양적팽창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④ 교수의 강의부담 과다

대학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학과를 세분화함으로써 학과에 필요한 교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교수의 강의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이러한 교수 강의 부담은 결국 전공과는 무관한 과목도 강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교수 1인당 담당과목도 3-4개에 달하여 강의 준비에 부담을 주게됨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⑤ 교수 활용의 비효율성

학과중심제도하에서는 교수가 학과에 소속되고 학과간의 폐쇄적 운영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서 학과에서 설강한 과목만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도 학과내의 강의 이외에는 타학과간의 청강이나 수강 학점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서 교수의 활용율이 과다하거나 과소해질 우려가 높아 결국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⑥ 교육시설의 비효율적 운영

학과중심제도하에서는 교수활용의 비효율성 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면에서의 활용도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학과간 폐쇄성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실험실습기자재나 시설 등이 필요한 이공계 학과간의 교육시설 활용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시설 설치 및 운영 또한 중복 투자되는 일면을 배제할 수 없다.

⑦ 교과목 운영의 중복과 비정상적인 운영

학과중심제도하에서는 학과가 세분화될 경우 유사학과간에 또는 기존 설치학과와 신설대학간에 큰 마찰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특히 신설학과의 경우에는 전공 기초과목이라 할지라도 기존 학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교과목을 설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수명칭이나 전공 기초과목과는 거리가 있는 과목을 설강할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과목 운영의 중복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학과나 유사 학과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무리한 과목 설강이 불가피하여 전공 무관 교과목을 이수케하거나 설강과목 명칭과는 다른 내용을 강의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피하게 된다.

⑧ 졸업생들의 취업과 진로 제한

산업체와 정부기관 등에서 인력을 선발시 학과 기준으로 응모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세부 전공으로 분화된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졸업후 진로선택에 제한을 받게 된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학과중심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등은 학생, 교수 및 대학 운영에 많

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안이 유사학과의 통폐합에 의한 학부제 운영이다. 그러나 학부제 운영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우리 대학이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제반 문제의 이상적인 대안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학부제의 장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유사학과의 통폐합에 의해 앞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학부제 도입의 허와 실

대학은 '학습하는 공동체'이다. 따라서 대학을 가리켜 '新3R 기제'라고 지칭하여 올바른 지식, 올바른 신념, 올바른 실천이 이루어질 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新3R은 학부제 도입이든 하과중심제이든 간에 學系間 협력과 學年間 협력을 전제로한 「교육받은 인간」 또는 「기능하는 인간」을 그 이상으로 한다. 특히 오늘날의 대학교육 이상은 「다기능적 인간」과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간」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편협된 전공이나 좁은 시야의 인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학부제에 의한 다학문적 접근경향은 시대적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대학현실을 감안할 때 유사학과를 통폐합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교수들의 강의 부담을 결정하며 대학원 학생이나 학부소속 학생들을 배분하는 일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학부제 도입에 의한 유사학과 통합의 기대효과는 결국 학과중심제도에서 지적되고 있는 제반 문제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강의 부담의 감소라든지 폭 넓은 전공교육의 기회제공, 행정의 간소화, 전공선택과목의 확대, 전공선택의 용이점, 교수의 연구활동 활성화 그리고 교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이 학부제 도입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과정의 편성과 강의 배정 그리고 학생들의 배분 등에 있어서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 간의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하고 교육기자재 지원비의 축소와 교수 충원 감소 등의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다. 우선 학부제 도입에 의한 장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 폭 넓은 전공교육 기회 확대(전공 선택과목의 확대)

학과중심체제하에서의 해당학과의 전공과목만 이수하던 학생들이 유사학과나 인접학문 계열의 강의를 수강하게 되어 폭 넓은 학사과정의 교육이 가능하게 되고 적성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폭 넓은 전공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학문 영역간의 폐쇄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② 교수의 강의 부담의 감소

학과중심제도에서와는 달리 학과별 기초과목이나 전공 필수과목 등을 통합된 학부 차원에서 설강하게 됨으로서 교수들의 강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형편에 따라 조교를 활용할 경우 충실한 강의가 용이해진다.

③ 수강 인원의 조정과 다양한 학습방법 활용

학과중심체제하에서는 학과에 배정된 정원을 중심으로 학년제 운영이나 전공/선택별 운영에 치중되어 왔으나 학부제 운영에 의해 대단위 강의로부터 소단위 강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강 규모로 운영이 가능해지고 이에 부합되는 팀티칭 등의 다양한 학습방법 활용이 더욱 용이해진다.

④ 연구활동 활성화

교수들의 학부과정 강의 부담이 감소됨으로서 학부교육 내용이 충실해질 뿐만 아니라 대학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구에 집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어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인접학문간의 공동 연구나 연구그룹 등을 형성하여 다학문적 대단위 연구가 가능해진다.

⑤ 교육 및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

학과중심제도에서는 학과간의 배타성에서 기인된 연구시설이나 교육시설의 중복설치와 비효율적 운영이 불가피하였으나 학부제 운영의 경우는 실험실이나 기자재 등의 이러한 시설을 공동활용함으로써 재정적인 절약과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⑥ 전공선택의 용이성 증대

학과중심제도에서는 대학과 대학원 진학시 세분화된 학과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학과통폐합에 의한 학부제 운영의 경우는 큰 학문분야에서 전공을 선택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전공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 진학의 경우도 학부과정에서 계열화된 큰 학문분야를 전공하였기 때문에 보다 전문화된 세부전공을 선택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학부제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부제도 도입이 완벽한 대안이 될 수만은 없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학부제가 안고 있는 부작용도 예측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예상되는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 ② 교과과정 편성시 국가 산업인력의 균형적 공급에 차질을 가져다 줄 수 있다.
- ③ 교수의 강의 담당시간 배정과 전공과목 강의 배정시 교수간의 전공이기주의가 심화될 우려도 있다.
- ④ 기초교육이 강화됨으로서 대학 3학년까지 기초교육을 시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전공분야의 교과목 감소에 따른 기초과목강좌수가 증가하게됨으로서 전공분야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 ⑤ 학과중심제도하에서는 학생지원에 의한 방법이든 교수별 학생정원 배정이든 대학원생 배정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지만 학부제도하에서는 대학원 학생의 배분이 어려워지게 되고 특히 연구중심대학의 경우는 대학원생 배정 문제에 대한 각 학문간 그리고 교수간의 이해상충에 따른 합의도출이 요구된다.

III. 통계학과 교육프로그램과 학부제의 방향

현재 우리 나라 대학 현장에서 개혁의 주된 과제로 시행되고 있는 학과통폐합에 의한 학부제의 도입 취지는 앞서도 제시된 바 대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학문영역의 세계적인 통합 추세에 부응하며 교과과정의 중복 편성 및 학과 영역별 폐쇄 운영 등으로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의 제약 및 졸업자의 취업 제한을 해소하고 중복 투자를 배제함으로써 제한된 고등교육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또한 교수들의 강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강의의 질 향상과 연구 여건을 제고하고 학제간 연구의 확대 및 공동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학과를 통폐합하여 학과군이나 계열별 또는 학부제를 도입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문제 또한 간단한 일은 아니다. 현행의 학과(department)체제에서 group, school, faculty 또는 division의 개념으

로 전환하는데는 교과과정의 문제 뿐만 아니라 행정적 문제, 학부의 조직 문제, 학생과 관련된 문제, 교수와 관련된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선 통계학과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1. 통계학과와 교육프로그램과 현황

통계학과는 기초과학으로서의 통계전공 교육과정과 더불어 교양과목과 서비스적인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타 학문들과 깊은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1992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전체 77개 대학에서 15,333명의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다. 이중 계산통계학과 3개교, 응용통계학과 13개교, 전산통계학과 19개교, 통계학과 36개교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통계학과 수는 자연계열에서는 물리학과 73, 생물학과 64, 수학과 76, 전자계산학과 63, 화학과 76 다음으로 많은 편으로 그 양적 팽창이 괄목할만 하다. 이러한 양적 팽창은 응용을 중심으로 한 통계자료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통계기법들의 발달과 순수 수학적 이론들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학문적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²⁾ 우리 나라의 경우는 상경계통의 응용통계 영역과 자연과학계열의 통계학과로 양분되어 온 실정으로 알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목표는 통계학자의 배출과 여러 분야의 응용자료를 다룰 수 있는 통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 그리고 통계자료를 필요로 하는 타 학과와 사회기관에 대한 통계 교양교육을 실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계관련 학과의 학부제 도입에 관한 논의는 타 학과와 달리 세심한 주의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통계학과와 발전 방향에서 지적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³⁾

- ① 교수 1인당 총학생수가 47명으로 지나치게 많으며
- ② 대부분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별/계열별로 프로그램의 차이가 없고
- ③ 통계관련 학과 이외의 타 과를 지원하는 서비스과목의 수가 적으며
- ④ 특정 통계기법들에 대한 교과목들로만 형성되어 있어 종합적인 자료 처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과목이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이 취약하고 시설여건도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특히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도 통계학과로서의 정체성 문제(identity problem)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발전방향으로서는 사회진출을 위한 통계학 교육인 응용지향적인 교육을 상경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시행해야 되며 아울러 대학원 진학을 위한 이론지향 통계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3원적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 점에서 학부제 도입의 경우 이러한 개선방안 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겠다.

2. 학부제 도입의 과제

학부제는 기존 학과중심체제의 대 변혁이라고 보기 보다는 기존 학과체제의 연계체제로 인식하는게 바람직하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학부제 도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학부제를 도입할 경우 학부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와 교과과정 편성의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와 함께 교수와 학생의 재배치와 조정에 관한 문제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된 문제, 행정직원, 조교, 장학금 지급 등의 문제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통계관련 학과의 학부제를 도입할 경우 몇 가지 관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통계학이 전공이 아닌 입장에서 통계관련 학과의 학부제 도입의 과제를 일반론적인 시각에서

2) 윤기중 (1989). '통계학과 응용', 응용통계 연구 제2권 제1호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4), 통계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접근해 보면

첫째 통계학에서의 컴퓨터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전산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며 저학년 수준에서부터 전산과 통계학이 연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실용적인 통계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응용적 통계분야와 이론을 지향하는 이론적 통계학과간의 교육과정상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셋째 통계 계열학과가 상경계열과 이공 및 자연계열에 분산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에 대한 학문적 특성을 감안하여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넷째 통계 관련학과와 일반학과에 개설된 통계학 과목을 감안할 때 세분된 방법론 위주의 교과목보다 통계자료 처리 목적 및 자료 형태에 따른 교과목 형태를 취해야 한다.

다섯째 필수과목의 수를 최소화하고 교과과정중 통계교육과 관련된 수학 및 전산과목은 통계학과에 맞도록 교과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산통계 또는 계산통계학과는 전산과목과 통계과목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특히 통계학과와 학부제 도입의 경우는 계열이 확연히 다른 단과대학 소속의 교수들이 한 계열화에 의해 통합된다는 점에서 응용부분의 통계군과 순수 통계군간의 세심한 조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조화는 단순한 교수들간의 물리적 통합의 차원만이 아니라 커리큘럼 설정의 합리성, 학생의 배치와 대학원생의 지도, 그리고 교수들간의 공동연구와 team teaching 등의 합리적 방안 그리고 의사결정과 조직체계의 합의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어느 학과이든 전공영역을 불문코 기득권을 포기하고 대학교육 발전의 인식하에서 합의에 의한 학부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통된 제안이라 생각된다.

IV. 학부제 도입의 방향과 과제

학부제를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우리 나라 대학 현실을 감안할 때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면서도 몇 가지 점에서 학부제 도입의 과제와 그 기본 방향에 대해서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학부제는 그 기본 전제가 대학원 중심대학을 염두에 둔 제도이다. 학부과정에서는 중단위 혹은 대단위의 인접 학문간 계열간 통합을 통해 다학문적 접근을 시도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심화 전공과정을 이수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예는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대학 그리고 근래 교육계획에 의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동경대, 쓰꾸바대 등 일본 대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부제 도입을 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전제조건들이 있고 이러한 전제조건이 예비되지 않고 학부제를 도입할 경우 그 실효를 얻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들로서는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1. 학부제 조직의 다양화

학부제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나 강요된 합의에 의해서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고 대학의 여건과 조직 성원의 합의를 전제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선택하여야 한다. 학부제 조직 형태의 몇 가지 유형을 제시한다면 현재의 체제를 가장 존중하는 '학과중심형 학부제'(departmental school)로부터 '통합형 학부제'(unit school) 체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화가 가능하다.

① 학과중심형 학부제

학과중심형 학부제는 현재의 학과중심체제를 존중하면서 부분적으로 학부제의 특장(特長)을 도입하는 형태이다. 이 형태는 학과의 골격과 행정체제는 그대로 두되 부분적 통합을 시도하는 형태로서 ‘학과장 위원회’, ‘커리큘럼위원회’, ‘입학 및 학생선발위원회’, ‘재정위원회’ 등을 통한 상호 협력체제 형태이다. 따라서 학과중심형 학부제는 부분적 학부제 또는 최소한의 협력체제라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학과중심으로 운영하되 커리큘럼과 기자재 등의 영역만 공동활용한다든지 협약교수제(joint-appointment)를 운영한다든지 공동교재 활용과 제한된 복수전공제를 도입하는 형태를 취한다.

② 커리큘럼형 학부제

커리큘럼형 학부제는 행정체제는 학과중심체제로 두거나 전공교수제로 운영하는 형태로 구분이 가능해지지만 어떤 형태로는 유사학과간의 공동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학부제이다. 커리큘럼 공동 운영은 부분적 운영에서부터 전체적인 운영에 이르기까지 수준이 다양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경우는 인접학과나 유사 계열간 공동 커리큘럼 부분과 학과 커리큘럼 부분으로 이원적 운영을 하는 체제이다. 커리큘럼형 학부제는 커리큘럼 설정과 운영에 있어서 교육적 의사 결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학과간 학점 상호 이수 및 인정 그리고 전공과 교양, 필수와 선택간의 합리적인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단과대학형 학부제

절충형 학부제는 현재의 단과대학(college)체제를 골간으로 하여 공동 커리큘럼형을 유지하거나 인문-자연계 절충형을 유지하는 형태이다. 단과대학형 학부제는 대학(college)→중단위부(division)→소단위부(sub-division) 형태를 취하거나 college→division→department 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 단과대학형 학부제는 학과중심체제와 학부제의 절충형으로서 학부제와 학과중심체제의 장점을 살리려는 방안이다. 이 형태의 학부제는 중단위(division) 책임자 예컨대 부장(division chair)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④ 계열형 학부제

계열형 학부제는 school(학부) 체제를 그 특성으로 하며 계열별 학부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형태는 대개 전문인 양성과 관련된 전공영역이나 기초 과학 그리고 이공계 계통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서 학부제의 대표적인 형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열형 학부제는 school-division-department의 행정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學年間系列보다는 學系間 행정 형태를 취하고 있는 형태이다.

⑤ 통합형 학부제

통합형 학부제는 대학 전체를 하나의 학부로 통합 운영하는 형태로 소규모 대학이나 전문형 단설대학 그리고 대학원 대학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통합형 학부제(unit school system)는 대학원 중심대학에서 보편화되어 있으며 무전공 총정원제와 함께 가능하다. 최근 동경대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2+2제도도 이러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체의 학제와 학계를 총괄 운영하는 완전 개방형 대학체제이다.

위에 제시한 유형 이외에도 대학의 특성에 따라 이상적인 형태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학과중심 체제를 개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커리큘럼과 실험실습 등의 공동 운영과 교수방법 등의 개선만 이루어진다면 학과중심형 학부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2. 대학과 대학원 연계

학부제의 기본 전제는 학부과정에서의 다학문적 접근과 대학원에서의 세부 전공별 심화과정의 운영에

있다. 따라서 대학원교육을 내실화할 수 없는 대학이거나 학부과정을 치중하는 ‘학사과정형 대학’에서는 학부제 도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도입을 할 경우도 제반 여건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학과 대학원간의 연계체제를 위해 커리큘럼 운영에 있어서도 2+2, 2+2+2, 2+3, 2+4 혹은 3+4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커리큘럼의 설정에 있어서도 일부 학부커리큘럼, 전공관련 교양커리큘럼, 계열필수커리큘럼 등의 제반 요소들을 고려해야하고 대학과 대학원간의 연계프로그램도 설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원과 학부과정의 커리큘럼이 중복되지 않아야 되는 일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대학-대학원 연계과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학부제 도입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중 대학과 대학원 교육간의 합리적 체제 정립과 커리큘럼 운영상의 연계 문제는 학부제의 성과와 관련된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대학과 대학원 연계방안은 학제적 방안과 학계적방안 그리고 커리큘럼 운영상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질 것이다. 예컨대 그룹형 대학-대학원 연계모델, 대학원 예비 학부모델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3. 교수간 협력과 책임시수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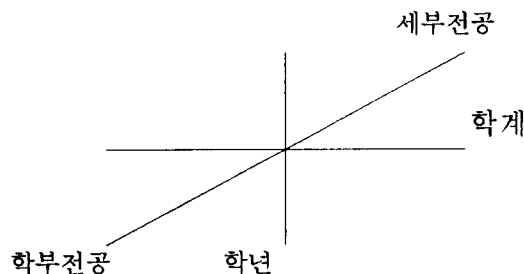
학부제 운영에서 예견되는 갈등중의 하나는 세부 전공영역이 다르고 기존의 소속 학과가 다른 교수들간의 협력을 유지하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 대학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교수들의 전공이기주의 성향과 학생들의 학과중심 사고를 어떻게 슬기롭게 조화시켜 유사학과간 통합을 유지하느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교수들간의 공동강의 제의 도입과 공동교재 집필, 공동 지도제, 계열 주임교수제, 입학 및 졸업 등의 학사관련 조정위원회나 간사제, 행.재정 관리협의기구 등을 통해 최대한 합의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학과 통폐합에 의한 학부제 운영에 따라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는 교수들도 많아질 것임으로 전공담당 윤번제, 선택과목 윤년제, 다학문적 접근일 경우의 chapter 교수제, 연구교수제와 강의교수제 및 행정교수제 등의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책임시수제의 폐지에 의한 대책도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4. 커리큘럼의 합리적 조정

학부제 커리큘럼의 문제는 결국 전공영역과 관련된 과목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담당교수간에 자기 영역의 과목을 설강하기 위한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학부제 도입의 기본 취지에 따라 그 근본정신을 살릴 수 있어야하며 단순히 자기 영역이나 자기 전공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커리큘럼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학부제의 장점을 극대화 시킬 수도 있고 학부제 도입 의도가 상실될 수도 있다. 학부제의 커리큘럼은 통합형 커리큘럼이 전제되어야 하며 학년간 학계간 그리고 전공간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5. 복수전공 혹은 다전공

학부제의 장점중에 하나는 복수전공과 다전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5.31 교육개혁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최소 전공학점인정제는 전공과목 24-32 학점을 이수하면 한 전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학과 통합에 의한 학부제하에서 복수전공과 다전공을 권장하는 체제와 커리큘럼 운영이 중요한 과제이다. 복수전공의 경우는 유사학과간의 전공도 바람직하지만 경영+이공, 인문사회+이공 기초과학+인문사회 등도 바람직할 수 있다. 예컨대 psycho-socio-economics라든지 bio-com-management 등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협한 전공영역의 고집보다는 진취적인 사고가 권장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합의가 주요한 과제이다.

V. 결론

이 글에서는 학부제에 관해 제한된 논의를 하였다. 특히 통계관련 학과에 직접 관련된 논의보다는 일반적인 논의에 치중하였다. 학부제 도입에 따른 대학가의 개혁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논의가 가능하겠으나 단순히 제도적인 변혁보다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개혁적 사고와 교육적 합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통계학과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통계관련 학과의 통폐합에 의한 학부제 도입의 경우 가능하다면 순수통계군과 응용통계군으로 2원화 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특히 순수통계군의 경우도 인문사회통계군, 수리나 수학기통계군 등으로 재조직이 가능할 것이고 응용통계군의 경우는 경영.경제통계군, 컴퓨터관련 응용통계군, 인문사회+이공통계군, 그리고 생활통계군 등으로 대학 특성에 맞게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직하다.

둘째 응용통계군이든 순수통계군이든 완전한 이원화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응용통계+순수통계형 모델을 개발하여 대학과 대학원 연계프로그램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이공계형 학부제 모델도 검토가 가능하리라 본다.

셋째 교수들의 배치는 통계전공 교수제로 통합하되 전공영역별로 subdivision 형태를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할 것이다. 다만 커리큘럼 운영에 있어 세심한 논의가 선결 과제이다.

넷째 통계 계열 학부제의 경우, 대학 실정에 따라서는 교양통계학부와 전공통계학부(또는 심화통계학부)로 구분 운영하는 방안도 한 가능성이라 볼 수 있다. 다만 교수들간의 합의와 공통된 교육적 의사결정 없이는 어느 방안을 도입하든 올바른 취지를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도덕적 기업이고 모든 학문은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는 동일한 근원에서 비롯되었고 어느 학문이든 결국 부분적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문적 연대에 의해서만 완전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